

비만과 동반된 무월경 환자 치료 1례

A case report of amenorrhea with obesity

김인중, 조정훈, 장준복, 이경섭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Abstract

A case report of amenorrhea with obesity

In-Joong Kim, Jung-Hoon Cho, Jun-Bock Jang, Kyung-Sub Lee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esity can cause abnormality of ovarian function, which can also result disorder of menstruation.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to reduce weights is the effective treatment in order to cure amenorrhea such as disorder of menstruation caused by obesity. This study shows a case that an obese woman by sumdam(濕痰) recovered from abnormality of menstruation as losing her weight due to a dose of Yijintang(二陳湯).

Keywords : Obesity, Amenorrhea, sumdam(濕痰), Yijintang(二陳湯)

I. 緒論

비만(obesity)이란 대사장애로 인해 체내에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칼로리 섭취가 신체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초과되어 열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남자는 체내의 지방이 체중의 25% 이상,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¹⁾.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식생활의 서구화 경향을 갖게 됨과 아울러 열량의 과다섭취와 운동량의 부족 등으로 비만증의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다²⁾.

비만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퇴행성 관절 질환 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비만한 여성에서는 빈배란, 무월경, 기능부전성 자궁출혈 등을 일으

키는 난소기능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난소기능의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불임을 초래하기도 한다³⁾.

비만여성에게 저 칼로리 식사와 체중감량을 시행하여 비만이 월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²⁾, 체중감소가 나타난 군에서는 월경주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임신이 가능하였으나, 체중감량에 실패한 비만여성에서는 월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안드로겐 과잉증, 무배란 소견을 보여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된 비만여성에서 체중감량으로 불임을 성공적으로 치료된 보고가 있으며, 칼로리 제한과 체중감소를 통해 증가되었던 혈청 Androstenedione과 Testosterone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교신저자: 김인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Tel. 02-989-8875, E-mail: injoong90@hanmail.net)

따라서 무월경이 있는 비만여성에서 체중감량으로 성호르몬의 역동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생식기능이 이상이 교정되므로 체중감량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임을 알 수 있다³⁾.

최근 비만과 생식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김 등⁴⁾은 加味補中益氣湯이, 양 등⁵⁾은 越鞠丸이, 최 등⁶⁾은 二陳湯이 각각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저자는 ○○한방병원에 來院한 비만을 동반한 무월경 환자 1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證例

1. 환자상태

- 1) 이름 / 연령 : 민 ○ ○ F/17 (고교 2학년)
- 2) 主訴 : 무월경, 비만, 소화불량
- 3) 발병일 : 素 비만, 月經不調(稀發) / 약 1년 6개월 전 LMP.
- 4) 과거력 : 無
- 5) 가족력 : 無
- 6) 월경력 : 초경-중학교 1학년, 이후 수개월에 1회씩 월경, LMP-약 1년 6개월 전
- 7) 임신력 : 0-0-0-0
- 8) 망문문절

睡眠	安眠	腹	中脘壓痛 腸鳴	大便	1-2회/일 (軟)
頭	時偏頭痛 時眩暈	食慾	時暴食	汗	少汗
面	肥白	消化	不良, 時惡心	舌	舌淡苔白厚 齒齦
頸項	硬直感	皮膚	肥白	肩背	肩硬結
胸脇	時胸悶	四肢	身重, 疲勞	脈	滑

9) 현병력

161.8cm, 72.2kg의 女患으로, 중1 초경 이후 월경이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있다가 약 1년 6개월 전 생리한 이후에는 생리 없었음. 수개월 전 local OBGY 검사상 별무 Dx. 호르몬 Tx. 후 수일간 생리 있었으나 이후에는 생리가 없었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비만한 체형이었으며 중학교 때부터 체중이 더 늘어났다고 함. 본격적인 한방치치 위하여 2003년 10월 11일 ○○한방병원 외래에 來院함.

2. 치료경과

		10/11~	10/25~	11/8~
二陳湯加味*				
신장 161.8 cm	체중	72.2		67.5
	BMI	27.6		25.8
	체지방량	23.4		20.7
水滯(痰飲) 점수 ⁷⁾		37		15
월경			10/27 ~30	11/30~ (전화)

* 二陳湯 加味 :

半夏 12g 赤茯苓 陳皮 生薑 6g 炙甘草 3g 南星 川芎 滑石 防己 羌活 8g

III. 考察

비만은 성인병의 일종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⁸⁾.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비만은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내분비기능에도 장애를 일으킨다⁹⁾. 그리고 비만 환자는 건강상 위험뿐 아니라 신체 외형에 의

한 심리적 위축 및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기도 한다¹⁰⁾. 특히 여성에서는 월경불순, 무월경, 불임증, 임신중독증, 유산 및 태아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¹¹⁾.

한의학에서 肥滿은 肥, 肥人, 肥貴人, 肥伴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¹²⁾, 膏粱厚味, 先天稟賦, 過食肥甘厚味, 久臥久坐, 活動過少, 外感濕邪 및 內傷七情 등으로 인하여, 氣滯, 痰濁, 水濕, 血瘀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¹³⁾.

<素問>¹⁴⁾에서는 肥滿이 甘味の 식품을 過剩攝取하고, 美食을 하고 獸肉을 常食하여 발생한다고 肥滿의 原因을 飮食物과 관련짓고 있다.

<靈樞, 逆順肥瘦論>¹⁴⁾에서 肥滿人은 濕痰이 많고 腠理가 緻密하여 氣血이 鬱滯되고 通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脾主身之肌肉’이라 하여 肌肉과 脾와의 關係를 설명하였다. 後世醫家들은 이러한 認識에 基礎하여 孫¹⁵⁾은 ‘肌肉極者 主脾也’, 朱¹⁶⁾는 ‘肥人多濕痰’, 林¹⁷⁾은 ‘痰生于脾’라 하여 脾가 運化하지 못하여 유발되는 濕痰과 肥滿과의 關係를 提示하였고 李¹⁸⁾, 陳¹⁹⁾ 등은 ‘肥人多濕痰 多氣虛’하다고 하여 肥滿人은 氣虛하며 濕痰이 많다고 하였다.

朱는¹⁶⁾ ‘肥盛婦人, 稟受甚厚, 恣於酒食之人, 經水不調, 不能成胎, 謂之軀脂滿溢, 閉塞子宮’이라 하여 蒼朮芎藭防風羌活滑石이나 或導痰湯之類로 行濕燥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傅²⁰⁾는 身體肥胖, 痰涎甚多하여 不妊된 者는 脾土之內病으로 氣虛에 原因이 있으며 ‘氣衰則不能行水, 而濕停於腸胃之間, 不能化精而化涎’한다고 하여 脂膜이 子宮을 閉塞하여 受精이 不能함으로 受孕하기가 困難하기도 하나 氣虛濕盛하여 化精이 不能하므로 洩水化痰을 爲主로 補脾胃之氣을 兼하여 加味補中益氣湯을 用한다고 하였다. 陸²¹⁾은 ‘婦人不育人體肥者는 其證이 身體虛이므로 內虛則氣衰而陰益不行,

浸淫於胞宮, 內肉必滿, 遮隔子宮, 精不能受한다.’고 하였다. 治法은 대체로 洩水化痰, 兼補脾胃하여 加味補中益氣湯, 越鞠丸, 二陳湯 등을 쓴다^{20,22)}고 하였다.

최근 비만과 생식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김 등⁴⁾은 加味補中益氣湯이, 양 등⁵⁾은 越鞠丸이, 최 등⁶⁾은 二陳湯이 각각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본 예의 환자는 161.8cm, 72.2kg의 女患으로, 중 1 초경 이후 월경이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있다가 약 1년 6개월 전 생리한 이후에는 생리가 없었으며, 수개월 전 local OBGY 검사상 별무 Dx. 호르몬 Tx. 후 수일간 생리 있었으나 일회에 그쳤고 이후에는 생리가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비만한 체형이었으며 중학교 때부터 체중이 더 늘어났다고 하며, 비만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도 위축 상태에 있었다.

10월 11일 來院시 체성분 검사상 신장 161.8cm, 체중 72.2kg으로 BMI 27.6으로 나타나 비만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時胸悶, 中腕壓痛, 消化不良, 時惡心, 舌淡苔白厚有齒齦, 脈滑 등을 고려할 때 痰濕阻滯로 인한 비만, 무월경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방진료학>⁷⁾의 水滯(痰飲)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볼 때, 점수 37점으로 痰飲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13점 이상시 痰飲으로 진단).

학생인 관계로 침이나 기타 비만 치료를 받으러 올 시간을 낼 수 없어, 약물치료 만을 시행하였고, 약물은 二陳湯을 主方으로 하였으며, <東醫寶鑑>²³⁾에 ‘肥盛軀脂滿溢子宮宜行濕燥痰南星半夏川芎滑石防己羌活或導痰湯’를 참고하여 南星, 川芎, 滑石, 防己, 羌活을 가하여 처방했다. 약은 2주 단위로 투여하고 4주 후에 다시 체성분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복약 2주 후 來院하였을 때는 체중이 약 2kg

정도 감량되었고 소화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복약 4주 후 11월 8일 來院시 환자 10월 27일부터 생리 있었다고 하였으며, 經色이 暗하고 經塊가 있었던 이외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양상이었다고 하였다. 체성분 검사상 체중 67.5kg, BMI 25.8로 나타났다. 담음 양상도 호전되어 15점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화조사상 11월 30일부터 동일양상의 월경이 있었다.

환자는 체중 감소와 더불어 정상적인 월경으로 만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고자 하였다.

환자의 전반적인 痰濕阻滯가 호전되어 체중이 줄고 아울러 월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향후 월경의 양상을 관찰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許水英, 姜孝信: 肥滿의 東西醫學的 考察과 治療, 韓方再活醫學會誌, 7(1), 272, 1997
2. 대한일차의료학회 비만연구회: 비만학이론과 실제, 123, 153, 서울, 도서출판한국의학, 1996
3. 대한비만학회(이태회): 임상비만학(1판), 176-177, 309-313, 서울, 도서출판 고려의학, 1995
4. 김혜원, 이경섭, 송병기: 加味補中益氣湯이 비만생쥐의 배란반응과 임신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2), 35-45, 2000
5. 양성우, 이경섭, 송병기: 越鞠丸이 비만생쥐의 난소반응과 임신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2), 23-34, 2000
6. 최정은, 조정훈, 장준복, 이경섭: 二陳湯이 비만생쥐의 난소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6(2), 68-75, 2003
7. 寺澤捷年 著, 曹基湖, 辛吉祚 譯: 한방진료학,

- 93-106, 서울, 집문당, 1998
8. 徐舜圭: 성인병·노인병학, 37-38, 457, 467-469, 서울, 고려의학, 1992
9. 대한병리학회: 병리학, 436-437, 서울, 고문사, 1990
10. 허갑범: 비만증, 10-72, 152-171, 서울, 웅진출판, 1995
11. 대한비만학회 편: 임상비만학, 1-5, 81-90, 서울, 고려의학, 1995
12. 翁維良, 焦東海 主編: 實用中西醫結合肥滿病學, 6-7, 38, 50-63, 북경, 學苑出版社, 1997
13. 趙洪健, 金炳卓: 肥滿症의 原因과 病機 및 治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61-71, 1992
1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39, 372-373,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16, 267,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6. 朱震亨: 丹溪心法附與., 267,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7. 林佩琴: 類證治裁, 52, 臺北, 旋風出版社, 1974
18. 李梴: 醫學入門, 93, 서울, 翰成社, 1977
19. 陳士鐸 編著: 精校石室秘錄, 52, 臺北, 國風出版社, 1974
20. 傅青主: 傅青主女科, 102, 106-107,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1. 陸青節: 萬病醫藥顧問, 49-50, 서울, 中醫叢書, 1975
22. 宋炳基: 漢方婦人科學(再版), 282-285, 서울, 행림출판, 1994
23. 許浚: 東醫寶鑑, 954, 서울, 南山堂, 1998

<참고>

<한방진료학>⁷⁾의 水滯(痰飲) 진단기준

증상	점수	증상	점수
몸이 무겁다	3	물 같은 콧물	3
박동성 두통	4	타액분비과다	3
頭重感	3	포말상의 객담	4
차멀미 잘 한다	5	오심, 구토	3
어지러움	5	腸鳴의 향진	3
기립성 현훈	5	早朝硬直	7
부종, 胃部振水音	15	물 같은 설사	5
胸水, 腹水, 心囊水	15	尿量 감소	7
臍上悸	5	多尿	5

* 합계 13 점 이상을 水滯(痰飲)으로 진단한다.